

입소문만으로 품질대란... 한국인 사로잡은 '신퀀타'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알렉스 엔드리치 산 마르짜노 수출매니저가 한국을 방문해 신퀀타 블랙 에디션 설명하고 있다. /금양인터내셔널

교실에서 조용히 있던 아이가 1등을 했다. 의아했지만 한 번쯤은 뭐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다음 학기 성적표를 받아보니 또 1등을 했다. 분기별로도, 계절이 바뀌어도, 해가 넘어가도 말이다.

이쯤되니 다들 궁금해졌다. 비결이 뭐니. 이탈리아 산 마르짜노의 와인 '신퀀타' 얘기다. 금양인터내셔널이 와인을 내놓고 별다른 마케팅도 하지 않았는데 품질 대란이 일어났다. 작년 주류수입 통계를 보면 이탈리아 와인이 25% 인팍으로 줄었는데 신퀀타는 오히려 더 팔렸다. 알렉스 엔드리치 산 마르짜노 수출매니저는 신퀀타 블랙 에디션 출시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퀀타는 강한 소스나 풍미, 매우 맛도 많은 한국 음식과 잘 어울린다"며 "집밥과 편하게 마실 수도 있고, 그냥 와인만

가볍게 즐기기도 좋은 와인"이라고 말했다. 블랙베리나 자두 같은 과실미에 후추향이 어우러진다. 무게감이 있고 기본적으로 드라이한 와인이지만 과일잼에서 느낄 만한 잔당감이 전체 균형감을 맛깔나게 맞춰준다. 처음부터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만드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누구나 호불호 없이 좋아할 맛이다. 입소문만으로 품질대란을 일으켰던 비결이었다.

신퀀타는 이탈리아어로 숫자 50을 뜻한다. 산 마르짜노 50주년을 기념해 만든 와인인데 반응이 좋게 나오면서 정식 와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올해 처음으로 출시하는 블랙 에디션은 한국 소비자들이 점차 프리미엄 와인을 선호하기 시작한 것에 착안해 수입사가 먼저 와이너리에 제안하면서 나오게 됐다.

신퀀타 블랙은 프리미티보와 네그로아마로 품종을 절반씩 섞어 만든다. 프리미티보는 우리가 진판델로 알고 있는 그 품종을 이탈리아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색이 진하고, 달콤하다. 당도가 높으니 알코올 도수도 높은 편이다. 네그로아마로는 이탈리아에서도 빨리아 지역의 레드와인 품종이다. 신퀀타에서 느낄 수 있었던 향신료 후추향이 네그로아마로에서 나왔다고 보면 된다.

둘 다 토착품종이고, 빨리아 와이너리 누구나 키운다. 관건은 자칫하면 강하기만 할 수 있는 이 품종들을 누가 잘 다루느냐. 그에 따라 와인의 격이 달라진다.

알렉스 수출매니저는 "프리미티보 품종의 경우 야생동물 풍미에 산도도 높고, 자칫하면 과할 수 있어서 뒤는 부분을 잘 컨트롤 하는 것

이 중요하다"며 "산 마르짜노는 같은 품종이라도 포도밭을 2곳으로 나눠 한 쪽은 과실미와 풍미를 살려 재배하고, 다른 쪽은 신선미와 적당한 산도를 줄 수 있도록 해 시중의 같은 품종 와인보다 균형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고령 100년에 달하는 올드바인은 포도 생산량은 적지만 특유의 집중력과 농밀함을 가지게 했다.

신퀀타의 레이블을 보면 생산연도, 즉 빈티지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품종만 놓고 보면 단순히 프리미티보와 네그로아마로 50%씩이지만 해당 품종 내에서도 여러 빈티지와 배럴 가운데 맛이 좋은 것들을 골라 섞다보니 그렇다. 삼페인의 논빈티지 양조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레이블의 뒷쪽을 보면 숫자가 나와 있는데 '+6'이면 신퀀타가 처음 나온 해부터 6년 뒤인 2018년에 나온 와인이란 얘기다.

알렉스 수출매니저는 "블랙 에디션은 단순한 와인이 아닌 이탈리아 와인 제조의 장인정신과 혁신적인 정신에 대한 증거"라며 "오크통에서의 추가숙성을 통해 와인의 복잡성, 깊이, 향을 높여 병에 담긴 훨씬 더 매력적인 이야기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smah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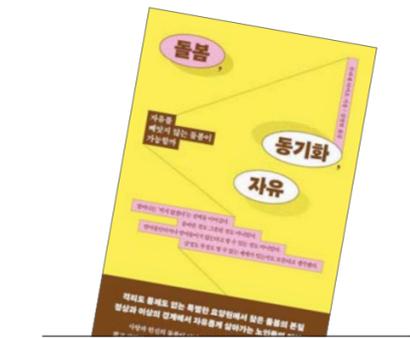
주말은 책과 함께

노인 돌봄과 자유의 공존

언젠가부터 할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게 됐다. 전화를 받으면 할머니는 큰아빠 이름을 불러댔다. 하루에도 몇 번씩 비슷한 일이 반복됐고 슬슬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할머니한테 성질을 부릴 순 없었기에 그냥 전화를 무시하는 걸로 대응했다. 엇그제는 부재중 전화가 20통이나 찍혀 있었다. 전부 '할머니'였다. 어디 아픈가 싶어 걱정돼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 있어?"라고 묻자 할머니는 "너는 누구냐?"고 되물었다.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더니 할머니는 "바쁘면 인사도 않고 끊어도 되는 거냐"며 버럭 화를 냈다.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바쁘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 들어!"라는 내 말에 할머니는 소리를 뿜어질었다. 둘 다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다.

할머니를 좋아했다. 그녀가 90살이 되기 전까지는. 더 정확하게는 기억이 오락가락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할머니는 뛰어난 기억력의 소유자였다. 다섯 명의 자식은 물론이거니와 손주 10명이 태어난 날을 전부 기억했다가 생일 당일엔 맞춰 전화를 걸어 축하한다며 따뜻한 인사말을 전하곤 했다. 엄마 아빠 몰래 통장에 용돈도 넣어줬다. 그랬던 할머니가 아흔 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다.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며 질릴 때까지 반복했고, 귀가 어두워져 대화하기도 힘들어졌다.

늙는다는 건 무엇이고, 노인을 돌본다는 건 어떤 일일까. '돌봄, 동기화, 자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다. 저자는 노인요양시설 '요리아이의 숲'의 소장인 무라세 다카오. 인지



돌봄, 동기화, 자유
무라세 다카오 지음/김영현 옮김/다다서체

장애가 있는 고령자를 돌보는 '요리아이'는 노인을 가두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하지 않으며, 원할 땀 언제든지 외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운영 철학으로 일본 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노인들의 생활을 보살피던 저자는 노화가 진행되는 육체에 생각지 못한 잠재력이 숨어 있던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입보다 유창하게 말하는 눈빛, 무당보다 뛰어난 말솜씨, 에너지가 흘러넘치는 혼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도약력...

저자는 "몸이 점점 자유롭지 않게 되면서 사회의 개념적인 것에서 점점 자유로워지는 과정이 늙는 것이라고 한다면, 노쇠의 세계란 과연 어떤 곳일까. 그곳이 어떤 곳이든 '늙음'이란 '노쇠=기능 저하'라는 등식에 전부 담을 수 없는 생기 넘치는 과정"이라며 "반대기 속에서 몸이 걸쭉하게 녹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듯한, 역동적이고 극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328쪽. 1만8000원. /김현정기자 hjk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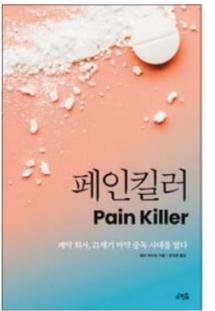
페인킬러

배리 마이어 지음/장정문 옮김/소우주

2021년 미국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했다. 이들 대다수가 마약성 진통제, 즉 오피오이드에 중독돼 세상을 등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제약 회사에서 생산하고 의사가 처방한 합법적인 약물을 과다 복용해 죽음에 이른 미국인만 해도 25만명이 넘는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 이 모든 재앙

의 시작점에는 옥시코틴이라는 약물이 있다.

책은 옥시코틴을 판매한 퍼듀 파마와 그 배후에 있는 새클러 가문의 어두운 세계를 폭로하며, 제약 회사의 탐욕, FDA의 허술한 규제, 잘못된 의료 관행이 얽히고설켜 매년 수십만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초래된 과정을 낱알이 까발린다. 252쪽. 1만6000원.



사피엔스의 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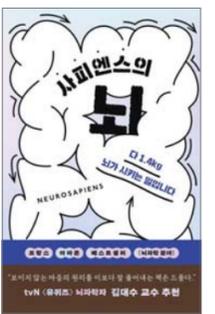
야나이스 루 지음/뤼시 알브레히트 그림/이세진 옮김/월북

왜 새해 결심은 일주일도 못 버티는 걸까. 일을 미리 하지 않고 끝까지 미루는 이유는 뭘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1.4kg의 뇌가 있다. 몸과 맘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건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진화해온 뇌의 시스템 때문이라고 책은 설명한다.

뇌는 연료비가 매우 비싼 기관이라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으려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의사 결정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운동 가기를 미루고 소파에 누워 있고 싶은 마음, 어려운 과제를 마감까지 미루는 행동, 새로운 아이디어보다 익숙한 고정관념에 안주하는 일은 모두 뇌의 에너지 절약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인간의 진실을 비추는 뇌과학 이야기.

324쪽. 1만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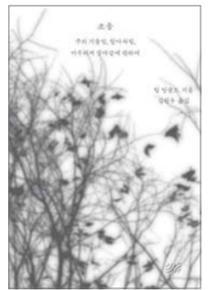


조용

팀 잉골드 지음/기량서사

'조용'은 세계 속 우리의 존재가 인간과 비인간을 포괄하는 타자와 사물들에게 빛지고 있음을 인식하며 응답하려는 감각이자, 응답을 책임으로 바꿔 나가는 삶의 방식을 뜻한다. 영국의 사회인류학자인 팀 잉골드는 오늘날 지구를 위협하는 총체적 생태 위기는 인간이 조용하는 법을 망각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조용은 이론이기 이전에 구체적인 몸의 감각이며 행위이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이 서로의 삶에 반응하고 개입하며 얽혀 세계를 이룬 방식이다. 문명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본연의 조용을 다시 익혀야만 세계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저자는 조언한다. 360쪽. 2만3000원.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발...관찰 대상국 유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오늘 표결 /사진 뉴시스

▲올해 유럽 전기차 4분의1은 중국산...차(車)관세 부과할 듯
▲중국, 호주산 와인 반덤핑·반보조금 관세 폐지



▲모로코경찰, 카사블랑카 마약조직 4명 살상... 10.3톤 압수
▲바이든정부, 석유·가스 채굴시 메탄 가스 유출 강력 단속에 나서 /사진 뉴시스